

두암2동 센터 사유화 ‘아직도 그대로’

이달 말까지 불법 점유시설물 철거 행정처분 공문 북구, 책임소재 확실히 안해...안일한 대응 도마위

〈속보〉광주 북구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특혜 논란(본보 지난달 14일자 7면)과 관련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행정처분 관련 의견서를 불법으로 점유한 개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제출하라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기리지 않고 유아무야 넘겨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센터 관리·운영부서와 동에서 북구로 이관 조치 과정에서 동장 교체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뒷말까지 날고 있어 공공시설물로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두암2동 센터가 특정 개인으로부터 수년간 불법으로 점유돼 온 사실은 지난해 11월 25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두암2동 센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은 주민사랑방인 센터를 수년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심지어 특정인이 두암2동 센터의 문을 자물쇠로 걸어잠그고, 별도의 공간에 개인의 집기와 물품을 비치해 놓는 등 개인의 사적 공간인 마당 사용돼 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북구는 지난해 12월 29일 두암2동 센터가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다.

북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에 따라 점유시설물에 대해 이달 말

까지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민협의체’에게 무단점유 중인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내렸고, 관리·운영 총괄업무를 두암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 조치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과정에서 북구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개개인이 아닌 특정 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센터를 불법 점유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 면죄부라는 비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여기에도 센터 관리·운영 담당 부서 또

한 오히려 불편한 업무를 떠맡은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센터를 불법으로 점유한 이들이 동장을 교체해달라 하거나 해당 지역구를 둔 기초의원이 교체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두암2동 센터 관리 업무가 본청으로 이전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활히 업무가 진행됐으면 우리가 맡았겠다”며 “오는 14일 의견서 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순 북구의회 부의장은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구청에 찾아가 동장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들었다”며

“당시 주민협의체와 동 행정복지센터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에게 화해 등 사과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시설물인 두암2동 센터에 대해 북구가 특정 개인들에게 이용 특혜를 부여해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북구가 특정 단체의 이름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제공하는 꼴이나 다름없고, 관에서 두암2동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인정한 것이다”며 “오히려 주민협의체 위원 7명 개개인의 이름으로 시설물 철거 요청서를 전달해 두암2동 센터가 주민들의 사랑방으로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준 기자



“해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호랑이 그림을 그려 보이며 ‘해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광주·전남 대입 정시 원서접수 마감

전남대·조선대 경쟁률 상승 불수능 속 눈치작전 치열

2022학년도 광주·전남 지역대학이 정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경제력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전남 주요 대학별 정시 경쟁률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대학교는 전체 1,769명 모집에 5,839명이 응시, 3.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2.70대 1 (모집인원 1,629명·4,398명 지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 캠퍼스 기준 일반전형에서 사회학과 7명 모집에 88명이 지원, 12.57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캠퍼스 기준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은 5명 모집에 40명이 응시해 8.0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수캠퍼스에서는 수산생명과학과 5명 모집에 49명이 지원해 9.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주캠퍼스 나군수능 (일반전형)에서는 수의예과가 11.61대 1 (18명 선발 209명 지원)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나라 기자

약학부는 18명 선발 125명이 지원해 6.94대 1을 기록했다.

조선대학교도 전체 1,441명 모집에 3,660명이 지원해 2.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2.31대 1 (모집인원 1,438명 3,326명 지원)보다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신설한 약학과는 일반전형 14명 모집에 119명이 지원해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7명을 모집하는 치의예과 (일반)도 200명이 몰려 5.00대 1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동신대학교는 전체 630명 모집에 486명이 지원해 0.77대 1, 호남대학교는 299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해 0.60대 1, 광주대는 431명 모집에 313명이 지원해 0.7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한 데다 불수능 논란과 사상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실시 여파로 수험생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서 막판까지 눈치작전도 치열하다”면서 “눈치파 수험생들의 거품 지원자도 경쟁률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신군부 지도부 발표명령 규명 주력”

송선태 5·18 조사위원장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이 3일 오월 영령을 참배하고 “특정 집단과 반란 신군부 지도부의 발표 명령 체계와 암매장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조사위에 따르면 송선태 위원장 등은 이날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탑 앞에서 헌화·분향·묵념하며 오월영령의 넋을 기린데 이어 진상규명을 다짐했다.

송 위원장은 “암매장 진실과 행방불명

자 소재를 밝히는 일은 사체처리반의 신원까지 확인한 단계”라며 “발포명령 체계와 함께 진상규명 입구에 해당하는 이러한 문제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로 마지막 조사 활동 기간을 맞았다”며 “모든 정성과 힘을 다해 진실을 밝혀 역사와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올해까지 국내외 기밀문건 분석과 대면·현장 조사를 마치고 종합보고서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추가 탄흔조사’ 옛 전남도청 접근 통제

내달 28일까지 감마선 촬영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미검증된 탄흔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조사구역 2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에 전

남도청 본관 등 총 6개 건물에 있는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마선 촬영을 진행했고, M16 탄두 5발과 탄흔 5곳 등 총 10발의 흔적을 찾아냈다.

이번에는 지난 1차 조사 때 식별한 총 535개의 흔적 중 미검증된 525개의 흔적과 수목에서 식별된 금속 반응 등 추가의 심되는 흔적에 대해 탄흔 여부를 판별하

고자 감마선 촬영을 실시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조사하고 올 하반기에 나머지 건물 (도청별관, 경찰국 민원실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탄흔으로 판정된 흔적은 보존처리 등을 거쳐 추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조사기간 동안 방사능 노출에 대비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림

막을 설치한다. 가림막 내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경찰국 일대는 전면 통제를, 민주광장 주변과 전당으로 진입하는 출입구는 조사 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두 번의 감마선 촬영 등을 통해 명확하게 탄흔 여부를 판별하고, 식별한 탄흔은 5·18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기념자산으로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 직업계고 29명 국가공무원 합격

전남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29명이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시험 (지역인재 9급)에 합격한 316명 중 전남지역 직업계고 학생 29명이 포함됐다.

합격자를 배출한 전남 직업계고는 총 17개교다.

행정, 세무, 관세, 기계, 건축, 화공, 농업, 임업 등 8개 분야에서 합격생을 배출했다. /이나라 기자

이러한 성과는 직업계고에서 공무원대 비만, 공기업만, 부사관만, 모의면접 대비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 교육청은 공무원 면접 대비 취업캠프 등을 운영 성과로 분석된다.

도 교육청은 2022년도에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비 학과 개편,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도입, 양질의 안전한 취업 등에 총력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h1>경매 교육 [특수전문반]</h1> <p>기초반, 중급반</p>	<h1>상가매매(상무지구)</h1>	<h1>신축원룸매매(신축)</h1>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수익 750만 년수익 9000만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010-6670-9800</p>
<p>광주</p>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p>전남</p>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p>시외</p>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p>010-6670-9800</p>		